

착취의 현장에서 탈출한 계절노동자의 삶을 응원한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2026년 2월 24일, 전라남도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계절노동(E-8) 비자로 일하던 필리핀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 사례가 공개됐다. 그의 이야기는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 위반, 열악한 주거 환경, CCTV를 통한 감시 등 심각한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로 얼룩졌다.

노동착취와 건강권 침해로 얼룩진 굴 양식장

그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채, 굴 1kg당 3,000원 수당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았다. 급여도 고용주가 아닌 브로커가 지급했고,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받아 기록조차 불분명했다.

주거 환경 또한 심각했다. 시설 표에는 침실 1개당 4명이 거주하도록 명시되었으나, 실제로는 15명이 집단 거주하는 열악한 숙소였다. 남성 브로커들은 이들의 사업장 이탈을 방지한다며 숙소 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행동을 감시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신체적 건강도 파괴됐다. 굴까기 작업은 반복적인 고강도 수작업이라 적절한 휴게시간과 기본적인 보호구가 필요했지만, 전혀 없었다. 매일 지속되는 중노동으로 노동자의 손목은 만신창이가 되었으나, 그 어떤 진료나 치료도 이뤄지지 않았다. 신체적 외상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심리적 내상이다. 24시간 감시와 위협 체계 속에서 노동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은 이들에게 높은 장벽이고 견고한 문턱이었다.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다. 개인의 몸과 마음은 소모품처럼 마모됐다. 이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선 명백한 '사회적 폭력'이다.

이는 단지 운이 나쁜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이주노동자의 신체와 생존권을 담보로 유지되는 한국 농어촌의 필연적인 결과다. 2023년 완도의 폭언·폭행 사건, 2024년 해남의 인신매매 사건과 궤를 같이한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2026년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 9천 명의 계절노동자 유입을 결정했고,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 21,094명을 배정받았다. 정부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의 획기적 대책’이라 자찬한다. 현실은 전남의 농어촌이 이주노동 없이는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는 ‘거대한 이주 현장’으로 변모했다는 뜻일 뿐이다. 정부는 ‘인력 공급’에만 혈안이 되어있을 뿐, 그들이 머물 ‘공간’과 아플 때 치료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방관하고 있다.

탁상행정으로 더 무거워진 굴레

여기에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 지자체의 무능력이 계절노동자를 더 힘든 착취로 내몬다. 전라남도의 농번기와 성어기는 행정의 시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수확 및 어획 시기와 어긋난 계절노동자 고용 시기 때문에, 일거리가 없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가 불법 파견되는 일이 발생한다. 정작 일손이 가장 절실한 시기에 계절노동자를 돌려보내야 하는 모순을 낳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책임 전가’다. 법무부는 제도를 도입해 놓고, 노동자의 주거 관리, 인권 보호, 건강권 보장의 모든 책임을 기초 지자체와 농·어가에 떠넘겼다. 전남 인력조차 부족한 군 단위 지자체들이 수천 명의 이주노동자를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행정력을 초과한 무책임한 제도가 노동자들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인프라의 공백을 파고든 것이 바로 ‘불법 브로커’다. 오죽하면 전남 22개 시군에서 맹활약하는 브로커 리스트가 있을 정도다. 출신국과 지자체 사이의 가교역할을 할 공공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브로커들은 임금 가로채기, 숙소비 과다 책정으로 노동자들을 현대판 노예로 만들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눈물로 빚어낸 굴과 짙은 결코 달콤할 수 없다. 국가는 노동력을 수입했지만, 사람이 왔다. 우리 사회는 그들을 사람이 아닌, 쓰고 버리는 일회용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2026년 대한민국 농어촌이 ‘인권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이제는 숫자가 아닌 ‘사람의 인권’에 집중할 때다.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굴 양식장을 탈출한 여성 노동자에게 장미꽃을 전달했다. 그는 계절노동 제도 착취의 현장을 벗어나 인권침해의 경험을 폭로하며, 또 다른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하는 중이다. 그의 삶을 응원한다. 